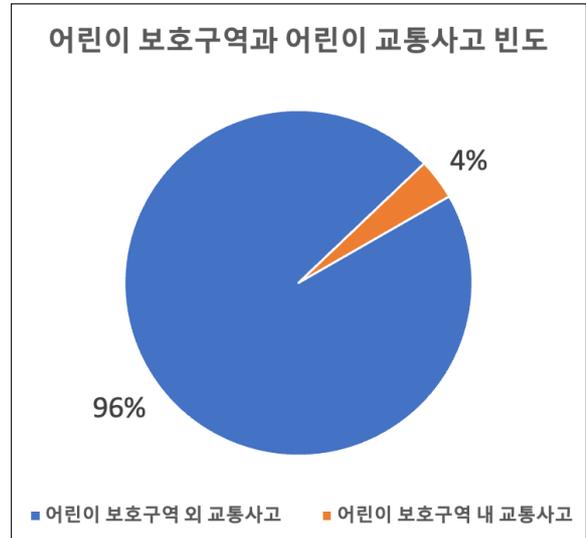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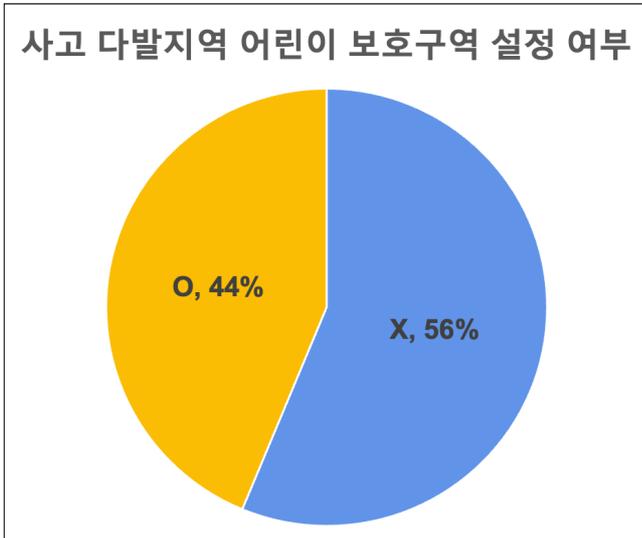


#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답사 결과

- 아래 의견들은 대구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18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임.
- 청구타운 앞 사거리, 현대건설, 대한노인복지센터 앞 삼거리 결과는 기록되지 않아 제외되었음.
- 대조군이 없어 가설검정, 상관분석 등은 불가함
- 기술통계량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현황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.
- 답사지역

수성네거리(교보빌딩)	대성스카이렉스 부근 사거리
황금네거리(수성SK리더스뷰)	용산네거리(용산역)
울하역교차로(롯데아울렛 앞)	화성그랜드파트 앞 삼거리(308동)
대구 대청 초등학교 동측 삼거리	현대백화점 앞 삼거리(대구점)
대구봉덕초 부근 사거리(북쪽)	거동네거리
월드마크웨스트엔드 부근 삼거리	거동교
성지중 앞 사거리(남동)	수성구청역 4번출구 앞 삼거리
도원네거리(대곡강산타운)	북침산사거리
월성e편한세상 앞(101동)	경대교 앞

의견1)



조사지역 중 약 44%가량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.

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4%에 불과한 반면, 사고다발지역의 절반 가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움

-> 단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 효과가 크다고 보기 힘들다.

의견2)

	O	X	O 비율
옐로카펫	1	17	5.56%
어린이 보호 신호등	1	17	5.56%
동시 보행신호	1	17	5.56%

	O	X	O 비율
보행자 안전펜스	7	11	38.89%
과속 단속 카메라	7	11	38.89%
속도제한 안내판	12	6	66.67%

현장 답사 결과, 일반적인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율은 약 40~65%로 비교적 준수했음.

반면 옐로 카펫, 어린이 보호 신호등, 동시 보행신호와 같이 어린이 안전 시설물 설치율은 6%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음.

→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확연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다발지역의 절반 가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유! 해당 지역에 어린이 보행 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닐까?

**의견3)**

주정차 관찰 및 교통법규 미준수 건수는 대조군 자료가 없을 뿐더러 편차가 심하여 단순 군집화하기도  
힘듦. 더불어 관측치의 편차가 실제 교통상황의 차이 때문인지, 조사자의 차이인지, 그 외의 요인인지  
또한 불분명함.

-> 특정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보다는 개개인의 조사 후 느낀 점을 토대로 의견을 녹여내는 것이 좋겠  
음.